

# 도시가계의 재무지식 및 재무관리가 객관적 재무건전성과 주관적 재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Effects of Financial Knowledge and Financial Management on Objective Financial Well-Being and Subjective Financial Satisfaction

조동필 · 양세정 · 배미경\*

상명대학교 생활환경학부 · 계명대학교 경제통상대학 소비자정보전공\*

Dong-pil Cho · Se-Jeong Yang · MiKyeong Bae\*

Sangmyung University, Division of Human Environments ·

KeiMyung University, College of Economics & International Commerce Department of Consumer Information Science\*

### Abstract

The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s among financial knowledge, financial management, and objective financial well-being and subjective financial satisfaction. The data used in the study was 331 households from the survey in both Seoul and Kyeonggi-Do. The data analysis was done using the SAS-PC program and several statistical techniques were utilized such as frequency,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The results from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roviding the information about the relationships between two variable after controlling other effects on the variables, showed that, the households with more financial knowledge tended to do more on both financial management plan and financial management implement. The households doing more on financial management implement were found to have more subjective financial satisfaction, while those doing more on financial management plan were found to have more objective financial well-being. Also, a positive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objective financial well-being and subjective financial satisfaction.

Key Words : Financial Knowledge, Financial Satisfaction, Financial Management Financial Well-being, Financial Welfare

## I. 서론

가계경제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계가 보유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효율적인 경제생활을 함으로써, 가계구성원들의 재무적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다. 효율적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원부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산관리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재무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거나 대비하기 위한 재무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가계를 둘러싼 내외적인 환경이 급변하면서 재무관리의 필요성은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다. 가계 외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금융환경의 변화와 함께 금융상품이

다양화되면서 가계는 이를 이해하고 현명하게 선택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내적인 측면으로는 평균수명의 증가라던가 가족구조개편에 따른 불안한 노후대비상황 등이 가계로 하여금 재무관리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킨다(이연숙 외, 2000). 더군다나 90년대 후반에 맞이했던 외환위기 상황은 실업의 위험과 물가불안, 금융산업구조의 불안 등을 가계로 하여금 경험하게 함으로써 가계재무관리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인지시킨 바 있다.

가계재무관리에 관한 연구는 1980년 초부터 가정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이들 연구는 체계론의 이론적 틀에 입각하여 가계의 재무상태 및 자원 변수, 재무관리와 재무만족도에 대한 관계분석이 주를 이루었다(김순미, 1993; 김효정, 2000 등). 대부분의 연구에

\* Corresponding author: MiKyeong Bae  
Tel: 053) 580-5864  
E-mail: baemik@kmu.ac.kr

서 재무관리의 결과로 나타나는 재무만족도를 주로 주관적인 느낌에 대한 평가로 측정했었고, 홍향숙(1997)의 연구는 재무목표달성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달성정도를 평가하게 하였으나 이 역시 주관적 평가였다.

본 연구는 체계론을 분석의 틀로 해서 연구를 진행하되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먼저 재무관리의 투입변수로 재무지식을 포함하였다. 재무지식은 재무관리를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인적자원의 측정방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많은 관련정보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무지식에 관한 정보를 선별하여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재무관리의 산출변수로 주관적 재무만족도 뿐만 아니라 객관적 재무건전성을 포함하였다. 양정선(1992)의 연구는 가계의 재정상태를 산출변수로 다룬 바 있었는데, 저축액과 같은 절대액을 중심으로 한 산술적 저량에 기초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산술적 저량은 누구나 쉽게 측정가능하고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많고 적음의 크기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개별 가계의 재무상태를 비교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연구에서 가계의 재무상태를 평가하는 도구로 가계의 재무비율을 다루고 있는데, 가계의 재무비율은 가계의 전반적인 재무상태를 나타내 주는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과 같은 가계 경제 요소를 결합하여 산출할 수 있는 것으로 종합적 자산관리를 위한 신뢰성 있는 재무상태 평가지표로 평가되어진다(최현자 외,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재무변수를 조합한 재무비율을 통해 그 가계의 재무상태 특성을 조사하여 주관적 재무만족과 더불어 산출변수로 사용하였다.

가계의 목표는 효용의 극대화라는 차원에서 출발점을 두고 있고, 효용의 측정은 객관적 재무건전성과 주관적 만족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개인가계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환경의 변화는 재무지식과 재무관리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가계의 객관적 재무건전성과 주관적 만족도 또한 증가한다는 것을 전제로 가계나 개인을 대상으로한 재무교육이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어지고 있다. 체계론적인 접근방법에 의거해 본다면 입력변수로 인한 산출변수의 생산성은 향상되어야 하지만 개인이나 가계의 재정과 관련된 효용의 극대화는 과연 이러한 여러 가지 입력변수에 의해 얼마나 향상되어지는가에 대한 연구는 전무후무한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가계의 자원변수와 재무관리행동의 관계를 살펴보되, 특히 재무지식수준과 재무관리정도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며, 자원변수, 재무지식수준, 재무관리행동과 객관적 재무건전성 및 주관적 재무만족도간의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다. 즉 가계의 효용극대

화와 관련된 객관적 재무건전성과 주관적 재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입력변수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체계론적 접근방법에 의거해서 분석해 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재무관리에 있어서의 체계론의 틀을 검증함과 동시에 재무관리의 객관적 산출이라 할 수 있는 객관적 재무건전성의 의미를 제공할 것이다. 더불어 재무지식과 재무관리, 재무적 만족도의 주관적/객관적 지표를 사용함으로써 관련변수의 측정방법에 대한 향후 연구에의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재무관리의 필요성과 시사점을 제공함으로써 가계로 하여금 효율적인 가계 재무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금융기관들에게 고객상담 및 재무관리관련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 II. 문헌고찰

### 1. 체계론 모형과 선행연구

재무관리의 개념화는 가정자원 관리모형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Deacon과 Firebaugh(1988)에 의해 개발된 가정자원 관리모형은 관리적 조사연구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다. 이들 모형의 경우 투입, 변환, 산출의 하부조직으로 이루어진다. 투입은 가계의 이용 가능한 자원과 자원들을 대신하는 요구들을 언급하고, 변환은 투입과 산출을 연결하는 계획과 수단행동의 내부관리과정으로 구성되어진다. 산출은 요구들의 복지에 관한 만족 또는 느낌들을 의미한다. Hira(1987)는 그의 연구에서 관리의 관점인 변환이 투입의 요구와 자원보다 재무만족의 중요한 요소라고 제안하면서, 체계론의 이론적 모델이 가계의 재무관리와 재무만족연구에 유용한 분석의 틀을 제공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

재무관리에 관한 체계론의 투입요소로는 일반적으로 연령, 교육수준, 직업, 가족수, 주부취업, 주택소유 등 가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이 다루어져왔으며(김순미, 1993; 김효정, 2000; 박미금, 1993; 임정빈 외, 1998; 양정선, 1992; 홍향숙, 1997), 더불어 주관적 변인들로 소득적 정감, 상대적 비교감, 기대성취감, 주관적 경제전망 등이 있었다(박미금 1993; 김순미, 김연정 1991). 일부연구에서는 투입요소로 재무관리지식을 사용한 연구들이 있었는데, 임정빈 외(1998)의 연구에서는 재무지식이 재정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온 반면, 여타 연구에서는 재무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환요소로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재무관리과정을 두었고, 또한 재무관리를 계획과정과 수행과정으로 구분하였다(안승철, 김년희, 1999; 이선형, 1995; 임정빈 외, 1998;

홍향숙, 1997). 특히 재무관리과정을 더욱 세분화한 홍향숙, 이종혜(1999)의 연구에서는 관리행동을 소득관리, 지출관리, 부채관리, 투자관리, 위험관리의 다섯가지의 관리행동으로 구분을 하였고, 각 관리행동별로 정보수집, 계획, 실행, 점검, 평가로 다시 구분하였다. 한편 김은양(1994)연구에서는 관리행동을 재정계획행동, 저축행동, 구매행동, 자녀용돈교육행동으로 나누기도 하였다.

산출요소로는 많은 연구들이 재정만족도를 측정하였다(김순미, 1993; 김효정, 1999, 2000; 안승철, 김년희, 1999; 이선형, 1995; 임정빈 외, 1998; 주인숙, 1995; 홍향숙, 1997). 재정만족도에는 소득, 가정에서 필요한 돈, 예기치 않은 일에 대비한 돈, 가계의 부채수준, 가계의 저축수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돈 등의 만족(주인숙, 1995; 홍향숙, 1997)을 측정하였고, 김순미(1993)의 연구에서는 산출변수에 재무만족도 이외에 미래의 재무계획을 두기도 하였다. 양정선(1992)의 연구에서는 산출변수로 가계의 재정상태를 다루었는데, 저축율, 총 저축액, 월평균 저축액, 증권액, 부동산액 등을 대상으로 해서 가계의 관리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산출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했다.

## 2. 재무관리의 재무만족도 관련 선행연구

재무관리와 재무만족도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재무관리와 재무만족도의 측정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거의 모든 연구에서 두 변인간에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순미(1993)의 연구에서는 재무관리가 재정 만족에 직접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정만족은 다시 미래의 재무계획 수립에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선형(1995)은 노인 단독가구의 가계경제 관리와 경제생활 만족도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결과에서 재정관리가 소비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정관리를 더 잘하는 집단이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짐을 의미하였다.

주인숙(1995)은 부채와 재정만족도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에서 부채를 얻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가계는 그렇지 않은 가계에 비해 더 낮은 재정만족도를 보였으며, 대출취득이 용이한 가계는 상대적으로 높은 재정만족도를 보였다.

임정빈 외(1998)는 재무관리행동은 가계의 재정만족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이 검증되었고, 재정만족도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구주 연령이나 가구소득, 재무지식, 생활격차감 등으로 나타났다.

이상협(1999)의 연구에서는 재무관리수준이 재정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같은 소득계층내에서

재무관리를 잘할수록 재정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같은 소득이라도 가정내에서 재무관리라는 수행과정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산출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김효정(1999)의 연구에서 남편과 아내의 재무관리행동이 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는데, 결과에서 월가계저축액, 남편과의 의사소통빈도, 준거집단 비교감, 재정상태 열망도, 재무관리행동 등의 변수가 재정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 3. 변수의 측정과 선행연구

### 1) 재무지식

재무지식은 90년대 초반부터 재무관리에 대한 관심증가와 더불어 관심이 증가되어 왔으며 90년대 후반부터 투입요소의 하나로 사용하는 연구들이 늘어났다. 임정빈(1998)의 연구에서는 자원 변수 중 재무관리지식 척도는 저축과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된 기초지식을 묻는 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맞는 답은 1점, 틀린 답과 모른다는 각각 0점으로 처리하였다.

안수미(1998)는 재무관리지식에 관한 내용을 여러 가지 자산의 기본특성과 고려해야할 사항을 알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어 10문항을 측정하였는데, 자산관리지식 척도의 정답을 맞추었을 때는 1점을 주고 틀리거나 '잘 모르겠다'에 응답을 했을 때는 0점을 주어 총 점수는 0점에서 10점이 되도록 하였다.

김효정(2000)의 연구는 부부의 가계재무관리행동이 재정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면서 투입변수 중 재무관리 지식에 관한 변수를 사용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재무지식에 관한 척도는 예금, 보험, 증권, 대출, 세금, 신용카드, 연금 등 각 영역별로 관련된 지식을 묻는 20개의 문항으로 연구자가 구성하였으며, '맞는답'에 1점을 주었고 '틀린답'과 '모른다'에는 0점을 주어 측정하였다.

### 2) 재무관리

재무관리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들은 계획과 수행측면으로 나누어 재무관리를 측정하였다. 박미금(1993)은 부부의 경제생활 만족도 비교분석이라는 연구에서 재무관리를 가계관리의 한 부분으로 측정을 하였고, 가계관리과정을 계획과 수행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계획영역은 목표설정(단기계획, 장기계획), 소비표준설정, 예산 책정, 소득과 비용평가 등의 내용으로, 수행영역은 소비자 구매, 가계부기, 저축 및 투자 소비자 권리행사,

소비습관 검토 및 평가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여 총 14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하였다.

이선형(1995)은 노인단독가구의 가계재무관리와 경제생활 만족도라는 연구에서 재무관리변수를 계획과 수행으로 측정하였는데, 계획영역으로는 목표설정, 소비표준설정, 예산책정, 소득과 비용평가 등 5문항을 두었고, 수행영역으로는 소비자구매, 가계부기, 저축 및 투자, 소비자권리행사, 소비습관 검토 및 평가에 유산분배 계획과 유산분배 수행 등 9문항을 측정하였고,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홍향숙(1997)은 재무관리와 재무목표달성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중년기의 기혼여성들이 가계의 두 가지 주요 재무목표(주택마련과 자녀교육비)를 달성하기 위해 재무계획과 수행을 측정하였다. 계획 척도는 주택마련에 관한 4문항 자녀교육비 마련에 관한 3문항을 5점 리커트로 측정하였고, 수행척도는 이들 계획의 실행과 점점에 대한 5점 리커트형 각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안수미(1998)는 재무관리과정과 부부의 역할구조라는 연구에서 자산관리를 정보수집, 계획, 실행으로 나누어 5점 리커트척도를 사용하여 '항상 남편', '주로 남편', '남편과 부인이 함께', '주로 부인', '항상 부인'으로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정보수집과 관련된 문항은 저축과 투자상품들에 대한 이자율, 상품정보, 상담, 교육 등과 주식과 부동산에 관한 8문항을 측정하였고, 계획과 관련된 문항은 장/단기 재무목표의 계획을 남편과 부인 중 누가 주로 세우는지에 관한 질문과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의 이용방법에 관한 질문 8문항을 질문하였고, 실행으로는 재무적 기록과 변동사항 기록 및 실질적인 재정운용 - 은행거래, 주식거래, 부동산거래, 세금거래 - 등 7문항에 걸쳐 측정을 하였다.

이상협(1999)은 재무관리와 재정만족도의 영향변수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재무관리 척도를 계획부분과 수행부분으로 측정하였는데, 먼저 목표설정, 소비표준설정, 예산책정, 소득과 비용 평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계획부분과 소비자 구매, 가계부기록, 저축 및 투자, 소비습관 검토 및 평가 등의 수행부분을 나타내는 12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합리적인 재무관리를 하는 것으로 보았다.

홍향숙, 이종혜(1999)는 개인·가계·환경변수가 가계의 재무영역별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재무관리 행동을 하위 5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소득관리행동, 지출관리행동, 부채관리행동, 투자관리행동, 위험관리행동 이상 5분류의 관리행동으로 구성하였고, 이들 각 영역별로 정보수집, 계획, 실행, 점검, 평가가 포함되도록 10문항씩을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 3) 재무만족도

재무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경제생활을 하는데 느끼는 만족도, 객관적인 재정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 재무관리에 대한 만족도 등으로 연구되어져 왔다.

박미금(1993)은 부부의 경제생활 만족도를 비교분석하였는데, 경제생활 만족도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경제활동 영역을 일상적인 소비생활(의/식/주의 기본소비생활, 여가 및 취미생활, 문화생활, 공과금 등 비소비지출, 자녀교육), 생활표준달성(재무목표달성, 자산증식, 노후생활안정, 가정행사대비, 소비표준달성), 경제환경 변화대비(경제적 위기대처, 물가변동 대비, 실직/은퇴 시 등의 소득감소 대비)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로 세부사항을 두었다. 문항수는 총 28문항으로 5점 리커트척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의 경제생활에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하였다.

김순미(1993)의 연구에서는 가계의 재정상태, 생활수준과 생활표준간의 격차, 재무관리 및 재정적 만족간의 관계를 체계론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경로모형을 통하여 체계론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재정만족문항은 생활수준과 생활표준간의 격차를 묻는 6개의 문항으로 가계의 재정만족 수준을 6점에서 24점까지 분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재정적 만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주인숙(1995)은 도시가계의 부채관리와 재정만족도에 관하여 연구를 하였는데, 재정만족도에 관한 척도를 보면 가계의 재정상황과 관련 있는 가계소득과 가정에서 필요한 돈, 예기치 않은 일에 대비한 돈, 가계의 부채수준, 가계의 저축수준, 그리고 미래에 대한 돈 등 여섯 항목으로 구성된 다중항목척도에 의해 개인의 재정만족도가 측정되었고,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선형(1995)은 노인단독가구의 가계재정관리와의 경제생활만족도를 연구하였는데, 경제생활 만족도를 일상적인 소비생활에 만족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소비생활 만족도와 생활표준이 달성된데에 대한 만족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생활표준달성 만족도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선행연구들의 척도를 사용하여 소비생활만족도 8문항, 생활표준달성 만족도 5문항으로 총 13문항으로 만족도를 측정하였고, '아주 만족', '약간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아주 불만족'의 형태를 갖는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홍향숙(1997)은 중년기의 기혼여성들이 가계의 재무관리와 재무목표달성도를 연구하였는데, 재무목표달성도를 사람들의 재무목표와 관련하여 그 달성도를 주관적으로 느끼고 평가하는 것을 말하였으며, 사람들이 재정상태와 관련하여 경험한 것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고 평가하는

재정만족도와 같은 의미로 보았고, 이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로는 주택마련과 자녀교육비 마련 목표의 달성정도를 5점 리커트형 각 1문항씩 측정하였다.

임정빈 외(1998)는 도시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간의 관계를 체계론에 기초하여 연구하였는데, 재정만족도를 재무관리의 결과로 성취되는 산출요소로서 가계관리자가 재정상태와 관련하여 경험한 것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현재 전반적인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을 묻는 4점 리커트형 1문항으로 측정을 하였다.

이상협(1999)의 연구는 도시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의 영향변수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재정만족도나 재정상태만족의 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체계이론에 접근시키고 또한 재무관리를 산출변수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서 재무관리 수준과 재정만족도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소득의 상,중,하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각 집단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재정만족도 척도는 선행연구들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직접 작성하였는데, 척도는 저축비율, 순자산, 비상준비금, 교육준비금, 주거, 노후준비금, 소득수준에 대한 만족도와 각 비목별 소비지출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전체 소비지출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15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에 대한 응답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큰 것으로 하였다.

김효정(1999)의 연구에서 남편과 아내의 재무관리행동이 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가계재무관리행동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도 산출로 남편과 아내의 재정만족도를 두었고 변수로는 가계의 저축수준, 전반적인 소비생활 수준,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내용을 충당할 능력에 대한 19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매우 불만족한다' 1점부터 '매우 만족한다' 5점 까지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 4. 재무비율의 종류와 준거기준 관련 선행연구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가계의 재무상태를 알아보고자 하는 시도는 Griffith(1985)에 의해 처음 시행되었으며,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관련 이론연구 및 재무비율의 유용성을 검증하려는 실증연구가 있어왔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재무비율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양정선(1997)은 산술적 저량에 기초한 재정상태와 재무비율에 기초한 재정상태로 나누어 가계의 재정상태를 분석하면서 재무비율의 종류와 기준을 제안하였다. 산술적 저량에 기초한 재정상태는 금융자산, 실물자산, 총자산, 총부

채, 순자산 등 세부항목으로 나누었고, 재무비율에 기초한 재무상태는 ①금융자산/월지출액, ②연간총지출/연간총소득, ③금융자산/총부채, ④실물자산/총부채, ⑤총자산/총부채, ⑥총부채/순자산, ⑦금융자산/순자산, ⑧총부채/연간총소득, ⑨주관적최저생계비/월소득, ⑩주관적최저생계비/월지출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최윤지, 최현자(1998)는 농촌 중·노년기 가계의 재정상태를 재무비율을 통해 파악하면서 4가지유형의 재무비율을 제시하였다. 첫째 소득에 대한 소비의 비율은 현재의 재정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비율로서 모든 지출총액을 가처분 소득으로 나눈 값을 의미하였다. 다음으로 유동성 비율을 두었는데 이는 가계가 실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 월평균 지출을 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얼마정도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비율이다. 셋째로는 부채부담비율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가계의 재정적 안정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비율로써 총자산대 총부채를 알아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본축적비율을 선정하였는데 이 비율은 투자자산/순자산으로써 가계가 보유한 실물자산액을 가계의 재무관리를 통해 어느 정도 잘 운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최윤지와 최현자는 다시 9개의 하위 비율을 통해 측정하였는데, ① 월평균 소비지출/월평균 가처분소득, ② 유동자산/월지출액, ③유동자산/연간가처분소득, ④ 유동자산/순자산, ⑤ 유동자산/총부채, ⑥ 총부채/순자산, ⑦ 실물자산/총부채, ⑧투자자산/순자산, ⑨ 연간총저축액/연간가처분소득이었다.

배미경(2001)은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근로소득자와 자영업가구의 재무상태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하였다. 이 연구에서도(최윤지, 최현자, 1998)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득대소비비율, 유동성 비율, 부채부담비율, 자본축적비율로 재무비율을 크게 나누었고, 이를 다시 ① 월평균소비지출/월평균가처분소득, ② 유동자산/월지출액, ③ 유동자산/연가처분소득, ④ 유동자산/순자산, ⑤ 유동자산/총부채, ⑥ 총부채/순자산, ⑦ 투자자산/순자산으로 7개 하위비율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최현자 외(2003)의 연구에서는 재무비율을 이용한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개발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이 연구에는 안정성지표와 성장성지표에 관한 재무비율을 하위 11개의 항목, 즉 가계수지지표(①월평균생활비/월평균가계소득), 비상자금지표(②금융자산/월평균생활비, ③금융자산/월평균가계소득), 위험대리지표(④월평균보험료/월평균가계소득), 부채부담지표(⑤월평균부채상환액/월평균가계소득, ⑥총부채/금융자산, ⑦총부채/총자산), 저축성향지표(⑧연간총저축액/연간가처분소득), 투자성향지표(⑨투자자산/총자산, ⑩실물자산/총자산), 유동

성지표(①금융자산/ 총자산)을 두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재무비율과 재무만족도간의 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준거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체계론은 투입, 변환, 산출로 이루어지는데, 투입은 가계가 이용할 수 있는 자원과 요구로 이루어지고, 변환은 투입과 산출을 연결하는 관리의 과정이고, 산출은 투입요소가 변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을 통해 만족감을 산출하게 된다(주인숙, 1995). 본 연구는 체계론적 모형에 입각한 재무관리이론과 가계경제적 이론을 접목하고자 하였으며, 재무관리의 투입, 변환, 산출체제를 연구모형의 근거로 한다. 가계가 처한 재무적 상황(재무지식)을 포함한 상황에서 재무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체계론의 투입변수로 선행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살펴보면 가계소득과 자산, 가구주 연령, 가구주 학력, 가구주 직업, 가족원수, 맞벌이 여부, 주거거주형태 등을 볼 수 있다. 한편 임정빈 외(1998), 김효정(2000)등이 사용한 재무지식을 투입변수로 두어 재무관리와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를 살펴보았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 변수를 투입변수로 포함하였다.

변환변수는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가계재무관리를 재무관리계획과 재무관리 수행으로 나누어 연구를 하였으나(박미금, 1993; 이선형, 1995; 홍향숙, 1997; 이상협, 1999), 가계재무관리를 보다 세분화 하여 정보수집/계획/실행으

로 나눈 연구(안수미, 1998)와 정보수집/계획/실행/점검/평가로 나눈 연구(홍향숙, 이종혜, 1999)도 있었다. 이에 본 연구의 관리행동은 이들의 연구를 참고하여 계획과 수행행동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산출변수로 객관적 변수와 주관적 변수를 함께 다루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산출변수로 재정만족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재정만족도는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객관적 재무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재무건전성을 함께 다루었다. 객관적 재무건전성은 양정선(1992)의 연구에서 사용된 산출변수인 재정상태(저축율, 총 저축액, 월평균 저축액, 증권액, 부동산액 등)를 참고하여 최현자 외(2003)의 연구에서 사용한 재무비율과 준거기준을 사용하였으며, 주관적 산출로는 많은 연구에서 산출변수로 사용된 재무만족도를 사용하였다(주인숙, 1995 외 다수)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그림 1] 참조).

[연구문제 1] 재무지식 및 투입변수가 재무관리행동, 재무관리계획, 재무관리수행에 미치는 영향변수를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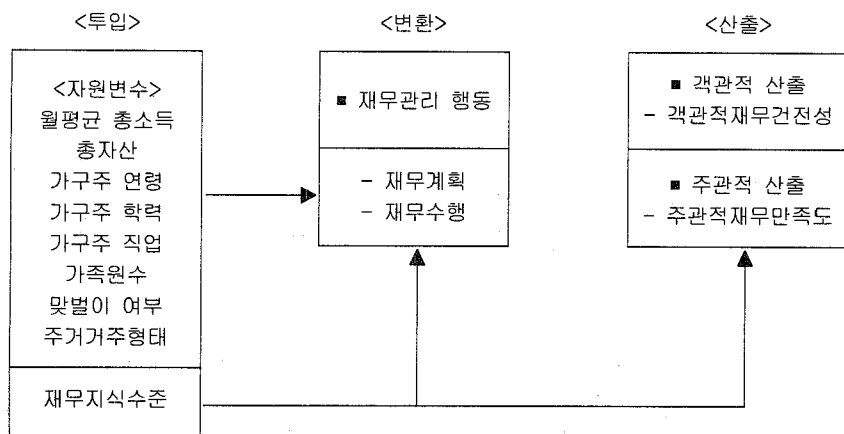
[연구문제 2] 투입변수가 객관적 재무건전성과 주관적 재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변수를 알아본다.

[연구문제 3] 객관적 재무건전성과 주관적 재무만족도의 관계를 알아본다.

#### 2. 변수정의측정

##### 1) 재무지식수준

재무지식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김효정, 2000)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재무설계 기초, 저축과 투자,



[그림 1] 연구모형

주식과 부동산, 신용카드와 부채관리, 세금관리, 보험, 연금의 큰 분류를 기본으로 하였다. 김효정(2000)의 재무지식에 관한 척도(예금, 보험, 증권, 대출, 세금, 신용카드, 연금)와 관련된 지식을 묻는 20개의 척도를 토대로 연구에 필요한 문항 중 일부 현재 금융상황에 맞게 하였고, 일부 문항은 소비자학 전공자들의 토의를 통해 첨가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재무관리 지식과 관련된 재무설계에 기초에 관한 3문항, 예금에 관한 3문항, 주식과 부동산 관한 4문항, 신용과 부채에 관한 2문항, 세금에 관한 3문항, 보험에 관한 3문항, 연금에 관한 2문항으로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질문에 대한 측정 방법은 선행연구들 대부분이 '맞다', '틀리다'의 답변과 '모르겠다'의 답변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도 질문에 대해 '맞다', '틀리다', '모르겠다'의 응답을 하게 한 후 질문에 대한 답을 맞추었을 경우 1점을 주었고, 틀렸을 경우와 '모르겠다'의 경우 0점으로 측정하였다. 20문항 전체 평균의 점수가 높을수록 재무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하였다.

## 2) 재무관리행동

본 연구에서는 재무관리를 계획과 실행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홍향숙, 이종혜(1999)의 연구에서 참고하여 5가지의 재무관리부분 - 소득과 세금관리, 지출관리, 부채 및 신용카드관리, 저축과 투자관리, 보험과 위험관리 - 의 분류를 참고하였고, 내용은 안수미(1998)와 이상협(1999)의 설문을 변형하거나 연구자가 직접 만들어서 소득과 세금, 지출, 부채 및 신용카드, 저축과 투자, 보험과 위험부분의 계획과 수행 문항을 중심으로 전체 20개 문항으로 측정을 하였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박미금(1993)의 연구에서 사용된 답변항목을 사용하였고, 질문에 대해 '항상 그렇다(5)', '대체로 그렇다(4)', '반반이다(3)', '가끔 그렇다(2)', '전혀 그렇지 않다(1)'로 5점 리커트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분석에 평균값을 사용하였는데, 따라서 5점 만점으로 1점에서 5점의 분포였으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재무관리행동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는 0.857로 나타났다.

## 3) 객관적 재무건전성

객관적 재무건전성은 제시된 재무비율의 준거치를 가계가 얼마나 충족하는지를 산출해서 사용하였다. 우선 재무비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최현자 외(2003)의 연구에서 사용된 11개의 재무비율을 기초로 하여 그중 7개의 재무

비율을 선택하였다. 준거기준은 최현자 외(2003)의 연구에서 사용한 것을 적용하였는데, (월평균지출/월평균소득)은 0.9미만, (금융자산/월평균지출)은 1.0초과, (총부채/총자산)은 0.8미만, (월평균부채상환액/월평균소득)은 0.25미만, (투자자산/총자산)은 0.05-0.1, (월평균보험료/월평균소득)은 0초과 0.2미만, (금융자산/총자산)은 0.1초과였다. 이에 본 연구는 앞에서 제시된 7개의 재무비율 중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재무비율의 수를 계산하여 '객관적 재무건전성'이라 명칭하여 사용하였다.

## 4) 주관적 재무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재무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김순미(1993)와 주인숙(1995)의 연구를 참고하여 6가지 영역에 대한 만족도, 즉 가계소득수준 만족정도, 한달 생활비 지출수준 만족정도, 저축수준 만족정도, 비상준비금 만족정도, 부채수준 만족정도, 노후대비 만족정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전반적인 경제적 여건에 대한 질문 1개 문항을 추가하여 총 7문항에 대해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매우만족(5)', '만족(4)', '그저그렇다(3)', '불만족(2)', '매우불만족(1)' 등 5점 리커트형 척도를 사용하였다. 분석에서는 이들 7개 만족도의 평균값을 사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관적 재무만족도는 5점 만점으로 1점에서 5점까지의 분포로 나타나게 되며, 총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재무만족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았다. 신뢰도 계수(cronbach  $\alpha$ )는 0.859로 나타났다.

## 5) 기타변수

투입변인으로 사용된 소득의 경우 조사대상가계에 들어오는 모든 종류의 소득(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 부업소득 및 기타소득)을 포함하여 월평균 가계소득규모를 조사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자산은 가계가 현재 시점에서 보유하고 금융자산, 투자자산, 실물자산의 금액을 만원단위로 기입하게 하였고, 이 모든 자산을 사후적으로 합산하여 총자산을 산출하였다.

가구주와 관련된 변인으로 연령, 학력, 직업변인을 포함한다. 연령은 직접 기재하도록 하였으나,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의 4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학력은 4년대졸 미만과 4년대졸 이상 등 2개의 그룹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가구주 직업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에 대해 '관리직(1)' 등 9개의 직업군을 제시하고, 합당한 직업번호를 적게 하였는데, 각 직업군에 대한 빈도의 차이와 직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직', '사무직', '관리직'을 묶어 '사무/전문직'으로, 그 밖에 '자영업'을

자'와 '전업주부', '학생', '무직' 등을 포함하는 '기타'로 재조합하여 사용하였다.

주거거주형태의 경우 조사대상가계의 거주주거가 '자가'인지, '전세'인지, 아니면 '월세'인지를 조사하였는데, 월세인 경우가 거의 없어서 통계분석 시 '자가'와 '비자가(전세와 월세를 포함한)'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가구원수는 조사시 가구원 모두의 연령, 직업 등을 적게 한 자료를 토대로 기록이 있는 경우의 수를 셈함으로써 가구원 수를 산출하였다.

이 밖에 재무비율을 산출하기 위해 재무관련 변인들이 조사되었다. 월평균가계소비지출액을 조사하기는 하였으나 자료분석 결과 조사대상가구들이 소비지출액에 저축액과 보험료 등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러한 수치는 연구의 원래 의도된 소비지출규모가 아닌바, 본 연구에서는 월평균가계소득에서 월평균저축액을 제외한 것은 월평균소비지출로 사용하였다.

금융자산은 예금과 주식 및 채권의 시가, 보험불입액, 빌려준 사채 등을 포함하여 만원단위로 적도록 하였고, 실물자산은 보유 주택시세, 기타 보유부동산의 시세, 귀금속 시세 및 각종 회원권의 시세를 합하여 적도록 하였다. 총부채의 규모는 주택대출을 포함하여 신용카드 연체금, 사채, 월부 및 외상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부채상환액은 한달 평균 상환액을 적게 하였다.

보험료의 경우 위험관리여력을 확인해보고자 하는 재무비율 산출에 사용됨에 따라 생명보험, 생명보험의 성격을 가미한 연금보험을 비롯 각종 상해보험, 화재보험 등 보장성보험을 항목별로 적게 하였고, 이들 액수를 모두 합함으로써 월평균보험료 불입액을 산출하였다.

### 3. 자료조사 및 분석방법

#### 1) 자료의 수집

본 연구는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가계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성인가계를 기준으로 무작위로 실시하였고 단순확률추출법으로 표집하였다. 표집절차는 가계를 직접방문하거나 조사원들을 통해 인편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조사방법은 자기기입법을 사용한 설문지로 하였다. 예비조사를 거쳐, 본 조사는 2003년 5월 15일부터 5월 2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최종 설문지는 총 400부를 배포하였고,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부적절하거나 연구에 부적절한 것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31부를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 2) 자료 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AS-PC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포와 백분율, 평균값을 사용하였고, 재무관리행동, 재무관리계획, 재무관리 수행, 객관적 재무건전성, 주관적 재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신뢰도 측정은 크롬바 알파를 이용하였으며, 모두 0.6이상으로 나타나 변수 사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1. 기초자료 분석

#### 1) 투입요소

##### ①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전체가구 331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은 약 363만원이었고, 총자산의 평균은 약 2억 9,998만원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총소득의 경우 우리나라 도시가계의 평균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은 평균 약 38세였고, 가구주의 학력은 4년대졸 이상이 189가구(57.1%)이었다. 가구주 직업은 사무/전문직이 전체의 58%에 해당하는 19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영상공업자가 31.4%였다. 맞벌이 가계는 127가구(38.4%)이었고,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가 전체 60.1%에 해당하는 199가구였다. 가구원 수는 평균 3.4명이었으며, 4명의 가구원으로 구성된 가구가 전체 46.7%로 가장 많았다.

##### ② 재무지식수준

<표 2>는 재무지식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각 문항의 정답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재무지식 문항들의 전체 평균은 0.553점이었는데, 평균적으로 20문항에 대해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정답을 맞춘 것으로 설명된다.

재무지식을 묻는 문항분류상 가장 많이 맞춘 분류는 재무지식 기초(3항목)부분으로 평균 0.721점을 기록하였으며, 다음으로 예금(2항목)부분이 0.605점이었다. 주식과 부동산에 관한 질문(4항목)이 평균 0.599점, 보험에 관한 질문(3항목)은 평균 0.570점으로 이들 점수는 전체평균(0.555)을 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 조사대상가계의 일반적 특성

(N = 331명)

변수	집단	가구수 (%)	변수	집단	가구수 (%)
월평균총소득	평균(표준편차)	363만원 (175.7)			
총자산	평균(표준편차)	2억9,998만원 (65491.2)			
가구주연령	평균(표준편차)	38.1세 (8.6)	맞벌이여부	맞벌이	127 (38.4)
	20-30	13 (3.9)		비맞벌이	204 (61.6)
	30-40	122 (36.9)	주거거주형태	자가	199 (60.1)
	40-50	112 (33.8)		비자가	132 (39.9)
	50세 이상	84 (25.4)			
가구주학력	4년대졸 미만	142 (42.9)	가족원수	평균(표준편차)	3.4명 (0.9)
	4년대졸 이상	189 (57.1)		2명	66 (19.9)
가구주직업	사무/전문직	192 (58.0)		3명	82 (24.8)
	자영업/상공업자	104 (31.4)		4명	153 (46.2)
	기타	35 (10.6)		5명	30 (9.1)

<표 2> 재무지식문항에 대한 정답률

	재무지식항목	평균값	표준 편차
재무 지식 기초	1. 인플레이션은 물가수준의 하락을 의미한다.	0.59	0.49
	2.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실제 경험하는 물가를 반영한다.	0.72	0.44
	3. 우리가 투자 시 고려해야 할 투자의 3원칙은 안전성, 수익성, 환금성이다.	0.84	0.36
	평균	0.72	0.26
예금	4. 완전비과세 저축상품은 우리나라에 없다.	0.48	0.50
	5. 예금자보험법에 의해 예금보험의 최대한도는 금융기관당 3,0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다.	0.48	0.50
	6. 은행이나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은 일반적으로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	0.84	0.36
평균	0.60	0.28	
주식/ 부동산	7. 종합주가지수는 주식가격의 변동을 나타내는 종합적인 지표이다.	0.78	0.41
	8. 채권은 주식과 달리 해당 회사나 국가가 존재하는 한 원금상환이 보장된다.	0.44	0.49
	9. 재건축의 경우 세입자에게 분양권이 주어진다.	0.48	0.50
	10. 확정일자만 공증받으면 전세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0.68	0.46
평균	0.59	0.24	
신용/ 부채	11. 담보가 없으면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돈을 빌릴 수 없다.	0.65	0.47
	12. 서명된 신용카드의 분실 신고전 60일 이내의 부정사용(제3자의 사용)금액은 전액 면책 받을 수 있다.	0.23	0.42
	평균	0.44	0.32
세금	13.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후 매매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된다.	0.41	0.49
	14. 증여세 공제한도는 성년 자녀의 경우 3,000만원이다.	0.25	0.43
	15. 소득세 산출시 국민연금보험료 전액이 소득공제 된다.	0.40	0.49
평균	0.35	0.28	
보험	16.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은 보험계약을 작성한 때부터이다.	0.50	0.50
	17. 생명보험회사의 저축성 보험은 7년이상 예치하는 경우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0.36	0.48
	18.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0.83	0.37
평균	0.57	0.27	
연금	19.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다.	0.40	0.49
	20. 국민연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강제보험이다.	0.61	0.48
	평균	0.51	0.33
전체평균		0.55	0.15

반면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분류(그림3)는 연금 부분과 신용/부채 부분, 세금 부분으로 연금에 관한 분류(2항목)와 신용과 부채에 관한 분류(2항목)는 각각 평균 0.513점, 0.444점이었다. 가장 적게 정답을 맞춘 분류는 세금(3항목)부분으로 평균 0.359점이었다.

## 2) 변환요소

<표 3>은 재무관리에 관한 질문별로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그렇지 않다(1)'에서 '항상그렇다(5)'로 평가한 재무관리문항들의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42점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세금관리부분의 평균은 3.36으로 전체평균(3.42)에 못 미쳤다. 소득과 세금관리부분 중 가장 높은 평균을 기록한 '세금관리기일을 잘 지킨다'는 5점 만점에 평균 4.34점으로 대부분의 응

답자들이 세금관리기일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모든 소득 출처별로 연간소득액을 매년 계산한다'와 '순자산을 정기적으로 계산해 본다'의 질문에는 평균이 각각 2.96점과 2.94점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지출관리부분은 평균 3.17점으로 5개 분류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지출관리 중 높은 평균값을 나타내는 질문은 '지출이 소득을 초과하지 않는다'와 '가계지출 중 조절이 가능한 금액을 알고 있다'로 각각 평균 3.54점과 3.50점이었고, '가계부를 작성한다'에 대해서는 평균점수 2.71점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부채 및 신용카드 관리부분은 평균 3.58점으로 5개의 분류 중 두 번째로 높은 평균을 기록하였다. 부채 및 신용카드 부분은 대체로 비슷한 평균값을 나타내었고, '신용카드로 구입한 금액이 생활비의 10%를 넘지 않는다'의 질문만 평균 3.12점으로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냈다.

<표 3> 재무관리의 문항별관리정도

	문 항	평균값 (5점만점)	표준편차
소득 세금 관리	1. 1년 동안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한 예상금액과 시기를 알고 있다.	3.35	1.15
	2. 모든 소득 출처별로 연간 소득액을 매년 계산한다.	2.96	1.37
	3. 세금납부기일을 잘 지킨다.	4.34	0.87
	4. 순자산을 정기적으로 계산해 본다.	2.94	1.27
	평균	3.36	0.79
지출 관리	5. 가계지출에 관한 예산을 매달 세운다.	2.94	1.27
	6. 가계지출 중 조절이 가능한 금액을 알고 있다.	3.50	1.08
	7. 지출이 소득을 초과하지 않는다.	3.54	1.20
	8. 가계부를 작성한다.	2.71	1.48
	평균	3.17	0.87
부채 신용 카드 관리	9. 주택마련(확장)을 위한 계획을 세운다(세웠다).	3.52	1.34
	10.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알고 있다.	3.79	1.37
	11. 돈이 생기면 저축보다는 부채를 먼저 갚는다.	3.90	1.21
	12. 신용카드로 구입한 금액이 생활비의 10%를 넘지 않는다.	3.12	1.35
	평균	3.58	0.84
저축 투자 관리	13. 1-5년 단위로 저축 및 투자목표를 설정한다.	3.16	1.32
	14. 현재의 경제수준에 적절한 저축(투자)방법과 기간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3.28	1.27
	15. 저축(투자)할 돈을 미리 떼어놓고 생활비를 지출한다.	3.49	1.32
	16. 금리의 변동을 고려하여 금융상품을 선택한다.	3.25	1.35
	평균	3.29	1.02
보험 위험 관리	17. 비상금(사고/질병에 대비한돈)을 위한 계획을 세운다.	3.29	1.21
	18. 비상시에 대비해 보험가입계획을 세운다.	3.76	1.15
	19. 생명보험(종신보험)에 가입하였다.	3.36	1.66
	20. 보험료는 기일내에 납입한다.	4.44	0.95
	평균	3.71	0.86
전체 평균		3.42	0.66

주: 문항 중 명암이 들어간 부분은 재무관리 중 '계획관련' 내용이며, 그렇지 않은 문항은 '수행관련'내용이다.

<표 4> 재무관리 계획, 수행관련문항 분석

	문항	평균값 (5점만점)	표준편차
재무계획관련	1, 2, 5, 6, 9, 10, 13, 14, 17, 18	3.35	0.78
재무수행관련	3, 4, 7, 8, 11, 12, 15, 16, 19, 20	3.49	0.62

저축 및 투자관리부분은 평균 3.29점으로 낮은 편이었다. 저축 및 투자관리부분은 대체로 평균점수들이 3.16, 3.28, 3.49, 3.25점으로 대체로 비슷하게 낮은 평균점수를 기록하고 있었고, 특히 '저축 및 투자목표설정'에 대한 점수(3.16)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재무계획의 부실함을 시사한다. 보험 및 위험관리 부분의 평균 점수는 5개 분류 중 가장 높은 3.71점이었다. 보험 및 위험관리 중 '보험료는 기일내에 납입한다'는 평균 4.44점으로 보험 및 위험관리 부분뿐만 아니라 재무관리 20개의 문항 중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다.

<표 4>은 <표 3>에서 제시된 재무관리관련 문항을 계획과 수행으로 구분하여 평균값을 계산한 것이다. 재무관리 계획 문항들의 평균은 5점 만점으로 3.35점을 기록하였고, 재무관리 수행 문항들의 평균은 3.49점 높게 나타났다. 특히 평균점수가 높은 재무관리 수행부분에서 표준편차가 0.629로 계획의 0.789보다 적게 나왔다.

3) 산출요소

① 재무비율을 이용한 객관적 재무건전성

<표 5>에서는 조사대상 가구의 재무상태를 항목별로 평균값과 표준편차의 결과이다. 재무비율을 산출할 때 사용될 월평균지출, 월평균소득, 금융자산, 투자자산, 총자산, 총부채, 월평균부채상환액, 월평균 보험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월평균지출의 평균은 약 195만원이었고,

<표 5> 항목별 재무상태

재무 상태	평균값(만원)	표준편차
월평균지출	195.2	107.4
월평균소득	362.6	175.7
금융자산	4027.2	7908.4
투자자산	366.4	1176.4
총자산	29998.0	65491.2
총부채	1496.7	2958.3
월평균부채상환액	19.4	46.6
월평균보험료	44.4	40.4

<표 6> 준거기준에 만족하는 재무비율

재무 비율	준거기준	만족가구수 (%)
1.월평균지출/ 월평균소득	0.9미만	296(89.4)
2.금융자산/ 월평균지출	1.0초과	316(95.5)
3.총부채/ 총자산	0.8미만	320(96.6)
4.월평균부채상환액/ 월평균소득	0.25미만	313(94.5)
5.투자자산/ 총자산	0.05~0.1	19( 5.6)
6.월평균보험료/ 월평균소득	0초과 0.2미만	236(71.3)
7.금융자산/ 총자산	0.1초과	182(55.0)

월평균소득은 약 363만원이었다. 한편 금융자산은 약 4천 27만원, 투자자산은 약 366만원이었고, 총자산은 약 2억 9천 998만원이었다. 총부채는 약 1천 496만원, 월평균부채상환액은 약 19만원이었다. 조사대상가계가 매달 지불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약 44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6>은 각 재무비율의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가구수들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월평균지출/ 월평균소득, 금융자산/월평균지출, 총부채/총자산, 월평균부채상환액/월평균소득비율은 전체가구의 약 90%에 해당하는 가구들이었다. 특히 금융자산/월평균지출비율과 총부채/총자산비율의 만족가구수는 전체 9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재무영역에 있어 재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투자자산/총자산비율은 19가구(5.6)만이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가구들이 자산운용을 안전지향형으로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월평균보험료/ 월평균소득 비율과 금융자산/ 총자산의 비율은 각각 71.3%와 55.0%가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보험료/ 월평균소득비율의 경우 앞서 높은 월평균보험료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과다하게 보험을 붙이고 있는 가구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7>은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재무비율 항목수를 나타낸 결과이다. 해당가구 전체 평균은 5.08로 총 7개 재무비율 중 평균 5개의 재무비율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의 재무비율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가구수는 41.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6개의 준거기준을 만족하는 가구가 31.7%였다. 7개의 재무비율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수는 11가구로 전체 조사대상가구의 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주관적 재무만족도

<표 8>는 주관적 재무만족도의 문항별 만족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각 문항에 대해 '매우불만족(1)'에서 '매우만족(5)'로 평가하였다. 주관적 재무만족도에 관한 6가지 질문의 평균은 2.91점으로 중립점인 3에 약간 못 미치는 것

<표 7> 준거기준에 만족하는 재무비율 수

준거기준만족 재무비율 수	해당 가구 수	%	전체평균 (표준편차)
1	2	0.6	5.08(0.96)
2	1	0.3	
3	13	3.9	
4	63	19.1	
5	136	41.1	
6	105	31.7	
7	11	3.3	
합계	331	100.0	

으로 나타났다.

부채수준에 대한 만족정도는 평균 3.15점으로 만족도 수치 중 가장 높은 평균점을 나타내었다. 표준편차 또한 다른 만족도보다 높은 것으로 미루어볼 때 가계의 부채 보유여부에 따라 만족정도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부채 항목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만족도가 3이하였다. 저축수준에 대한 평균이 2.74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노후대비 만족정도와 위험대비 비상준비금 만족정도가 2.87이었다.

<표 8> 주관적 재무만족도의 문항별 만족수준 (N=331)

문항	평균값 (5점만점)	표준편차
1. 가계소득수준에 대한 만족정도	2.93	0.85
2. 한달 생활비 지출수준에 대한 만족정도	2.89	0.79
3. 귀하 가계의 저축수준에 대한 만족정도	2.74	0.87
4. 위험에 대비한 보험 및 비상준비금에 대한 만족정도	2.87	0.91
5. 부채수준에 대한 만족정도	3.15	1.15
6. 경제적 측면에 대한 노후대비 만족정도	2.87	0.90
(1+2+3+4+5+6)/6	2.91	0.66

2. 회귀분석 결과

1) 재무관리행동, 재무관리계획, 재무관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표 9>는 재무관리행동과 재무관리계획과 재무관리수행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가계의 자원변수와 재무지식수준변수에 의한 재무관리행동과 재무관리계획, 재무관리수행의 설명력은 각각 8.2%, 9.1%, 5.2%이었다.

<표 9> 재무관리행동, 재무관리 계획및 재무관리수행에 대한 회귀분석

독립변수	재무관리행동		재무관리계획		재무관리수행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월평균 총소득	-0.00003	-0.17	0.00006	0.24	-0.0001	-0.65
총자산	3.092	0.54	1.016	0.15	5.169	0.93
가구주연령 (비교집단:30세미만)						
30-40세 미만	-0.321	-1.69	-0.350	-1.55	-0.292	-1.59
40-50세 미만	-0.346	-1.72	-0.411	-1.72	-0.280	-1.45
50세 이상	-0.550**	-2.72	-0.661**	-2.75	-0.439*	2.24
가구주 학력 (비교집단: 4년대졸미만)						
4년대졸 이상	-0.161*	-2.06	-0.236*	-2.54	-0.086	-1.14
가구주 직업 (비교집단:기타)						
사무/전문직	0.108	0.89	0.075	0.52	0.141	1.20
자영상공업자	0.193	1.52	0.115	0.77	0.271*	2.21
맞벌이여부 (비교집단:비맞벌이)						
맞벌이	-0.069	-0.94	-0.110	-1.26	-0.027	-0.39
주거거주형태(비교집단:비자가)						
자가	-0.149	-1.85	-0.177	-1.85	-0.121	-1.55
가구원수	0.082	1.79	0.084	1.54	0.080	1.80
재무지식수준	1.006**	4.21	1.280**	4.50	0.732**	3.17
상수항	3.048**		2.971**		3.124**	
R <sup>2</sup> adj.	0.082		0.091		0.052	
F값	3.49**		3.75**		2.52**	

\*P<0.05 \*\*p<0.01

다중회귀분석결과에서 자원변수 중 가구주 연령은 재무관리행동과 재무관리계획, 재무관리수행에 각각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50세이상의 가구가 30세미만의 가구에 비해 재무관리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30세미만의 가구가 50대이상의 가구에 비해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많이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가구주의 학력의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면 4년대제졸 집단이 4년대졸미만 집단에 비해 재무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재무관리계획부분에서 부족함을 보였다.

재무지식수준도 재무관리행동에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다. 재무지식수준이 재무관리행동의 계획과 수행부분 모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재무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재무관리계획과 수행도 잘 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반면 주거거주 형태나 가구원수의 경우는 여타 변인을 조절한 후 재무관리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결과(임정빈 외, 1998)와 차이를 보이는데 소득과 자산이 많다거나, 학력이 높다고 재무관리를 잘 하는 것은 아니며, 젊은 계층과 재무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재무관리를 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객관적 재무건전성 및 주관적 재무만족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표 10>은 객관적 재무건전성과 주관적 재무만족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가계의 자원변수와 재무지식수준, 재무관리행동에 대한 객관적 재무건전성과 주관적 재무만족도의 설명력은 각각 12.3%와 26.7%였다.

객관적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월평균 총소득과 가구주연령, 재무관리계획이었다. 여타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하였을 때, 비교집단 30세 미만집단에 비해 4, 50대 집단이 객관적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객관적 재무건전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재무관리행동의 계획

<표 10> 객관적 재무건전성과 주관적재무만족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	객관적재무건전성		주관적재무만족도		주관적재무만족도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월평균 총소득	0.001**	4.07	0.001**	6.20	0.001**	5.55
총자산	6.411	0.79	0.000001*	2.43	0.000001*	2.34
가구주연령 (비교집단: 30세미만)						
30-40세 미만	-0.338	-1.25	-0.054	-0.32	-0.026	-0.15
40-50세 미만	-0.648*	-2.27	-0.091	-0.51	-0.036	-0.20
50세 이상	-0.785**	-2.71	-0.072	-0.39	-0.005	-0.03
가구주 학력 (비교집단 : 4년대졸미만)						
4년대졸 이상	0.073	0.66	0.054	0.76	0.047	0.68
가구주 직업 (비교집단: 기타)						
사무/전문직	-0.137	-0.80	-0.027	-0.25	-0.015	-0.15
자영상공업자	0.016	0.09	-0.002	-0.02	-0.004	-0.04
맞벌이여부 (비교집단: 비맞벌이)						
맞벌이	0.110	1.05	-0.091	-1.36	-0.100	-1.51
주거거주형태(비교집단: 비자가)						
자가	-0.157	-1.37	0.150*	2.06	0.163*	2.25
가구원수	0.005	0.09	-0.141**	-3.41	-0.142**	-3.45
재무지식수준	-0.568	-1.63	-0.507*	-2.29	-0.459*	-2.08
재무관리계획	0.200*	2.09	0.070	1.16	0.053	0.88
재무관리수행	0.060	0.51	0.351**	4.67	0.345**	4.64
객관적 재무건전성					0.085*	2.41
상수항	4.645**		1.736**		1.340**	
R <sup>2</sup> adj.	0.123		0.267		0.278	
F값	4.31**		9.60**		9.48**	

\*P<0.05 \*\*p<0.01

부분이 객관적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재무관리수행은 객관적 재무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개의 재무관리변수간에 차이를 보였다. 또한 여타변수의 영향력을 조절한 상태에서 재무지식정도는 객관적 재무건전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재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월평균 총소득과 총자산, 주거거주형태, 가구원수, 재무지식수준, 재무관리수행이었다. 객관적 재무건전성과는 달리 주관적 재무만족도의 경우 월평균 총소득과 총자산 모두 정(+)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무자원의 규모가 주관적 재무만족도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거거주형태 집단에서도 비자가의 경우보다 자가의 경우가 주관적 재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말해 주거거주형태가 자가인 경우 사람들이 주관적인 재무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한편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재무지식수준이 낮을 수록 주관적 재무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을 나타냈고, 반면 재무관리수행을 많이 할수록 주관적 재무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말해 가구원수가 증가하거나 재무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재무만족도는 떨어지고, 재무관리수행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주관적 재무만족도는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재무관리 계획은 주관적 재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맞벌이 유무, 가구주 직업, 가구주 연령, 가구주 학력은 주관적 재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분석결과는 기타변인이 통제된 후에 객관적 재무건전성이 주관적 재무만족도에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자원변수와 재무지식수준, 재무관리행동, 재무건전성에 의한 주관적 재무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은 27.8%였다. 재무관리수행은 주관적 재무만족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재무관리수행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주관적 재무만족도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커진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 재무관리계획은 주관적 재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재무관리계획보다는 실질적인 재무관리수행을 통해 가계들이 재무에 대한 만족을 느낌을 시사한다. 객관적 재무건전성도 주관적 재무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재무비율의 준거기준을 많이 만족하는 집단은 주관적으로도 재무만족을 많이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재무지식수준은 객관적 재무건전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관적 재무만족도에는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재무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것은 일반적으로 재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즉 가계의 효용을 극대화 하기위한 수단으로서의 재무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재무관리수행과 주관적 만족도와와의 관계와 연결시켜 해석할 경우 어느정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사려된다. 재무관리 수행은 주관적 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져, 주관적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은 지식보다는 실제 행동과 면밀히 관련되어진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또한 지식이 높다는 것은 재정관련 교육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재정만족도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져 부적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겠다. 재무지식수준이 재무관리행동, 계획, 그리고 실행에 모두 정적인 관계를 보이고 유의미하게 나타난 표 9의 결과를 미루어볼때, 종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재무지식이 장기적으로는 재정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보다더 면밀한 결과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 사려된다.

## V.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가계를 대상으로 재무지식수준, 재무관리행동, 객관적 재무건전성 및 주관적 재무만족도간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연구의 목적으로는 재무지식수준과 재무관리행동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재무지식수준을 포함한 투입변수 및 재무관리행동과 객관적 재무건전성과 주관적 재무만족도간의 관계를 알아보았으며, 더불어 객관적 재무건전성과 주관적 재무만족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실증분석을 위해 서울 및 수도권외 331가구를 대상으로 하였고, 자료분석은 SAS-PC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포와 백분율,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중회귀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월평균소득이 높을수록 객관적 재무건전성이 높았고,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객관적 재무건전성에는 부(-)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재무관리계획을 잘 할수록 재무비율의 준거기준을 잘 충족하였다. 주관적 재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월평균 총소득과 총자산이 높은 사람은 주관적 재무만족도가 높았다. 자가를 소유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자가집단이 가계의 재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주관적 재무만족도는 낮아졌다. 재무관리수행은 주관적 재무만족도와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재무관리계획은 주관적 재무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객관적 재무건전성이 높을 수록 주관적 재무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재무관리계획과 재무수행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재무관리행동은 객관적 재무건전성과 주관적 재무만족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객관적 재무건전성과 주관적 재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실질적인 재무관리행동이 중요하며 재무관리행동에는 재무지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재무지식이 주관적 만족도에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식의 정도가 오히려 재정만족도의 기대수준만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다른 한편 횡적 연구결과보다 종적연구를 통해서는 재무지식과 재정만족도의 관계가 보다 선명해 질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한편 재무관리계획은 객관적 재무건전성에, 재무관리수행은 주관적 재무만족도에 각각 영향을 주는 것을 분석되었다. 이는 가계의 객관적 재무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무관리계획을 잘 해야 하고, 반면 주관적 재무만족도는 재무관리수행 노력과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객관적 재무건전성이 높을수록 주관적 재무만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객관적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것은 재무만족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향후 재정상담을 할 때 유용한 지침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다고 본다. 즉 재정문제가 있는 가계의 경우 객관적 지표를 향상시킴으로서 주관적인 재정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소득수준이나 자산수준별로 객관적 재무건전성과 주관적 재정만족도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과 다른 몇 가지 시도를 통해 관련분야에 기여하고 있음과 동시에 해당부분에 대한 보다 발전된 연구를 필요로 한다. 재무지식에 대한 척도를 세분화하여 사용함으로써 보다 정교하게 재무지식이 평가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기존 재무지식척도의 표준이 될 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연구자가 개발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에서 보다 정교한 척도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재무관리행동의 척도 또한 영역을 5개로 세분화 하였고(소득과 세금, 지출, 부채 및 신용카드, 저축과 투자, 보험과 위험), 이를 다시 계획과 수행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체계론에 근거한 연구들의 경우 재무관리행동을 계획과 수행으로 나누고, 그 비중을 같이 두는 경향을 보였고 본 연구 또한 동일방법을 적용하였다. 이 역시 향후 연구에서 이론의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재고되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된다. 즉 현실

적으로 재무관리상으로 볼 때 계획과 수행의 비중이 같지 않을 여지가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재무관리계획 중 계획과 수행의 적용에 대한 보다 현실적 적용이 필요하다.

한편 재무관리행동과 객관적 재무만족도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발견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산출변수로 주관적 재무만족도 외에 객관적 재무만족을 대변하는 객관적 재무건전성 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객관적 재무건전성이 주관적 재무만족감과 서로 유의미한 상관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그간 행해진 주관적 재무만족도를 이용한 다수 연구결과들에 대해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객관적 재무건전성에 대한 척도 개발 및 주관적 재무만족도와와의 관계고찰에 대한 재검증의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주제어** : 객관적 재무건전성, 주관적 재무만족도, 재무관리, 재정복지, 재무지식

## 참 고 문 헌

- 김숙이 (1987) 도시 주부의 경제생활 만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순미, 김연정 (1991) 체계론적 관점에서 본 가정의 주관적 재정복지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03-117.
- 김순미 (1993) 도시가계의 재정상태, 재무관리 및 재정적 만족의 관계분석: 체계론의 적용가능성 검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198-207.
- 김은양 (1994)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가계관리행동이 재정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효정 (1999) 부부의 가계재무 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8), 91-102.
- 김효정 (2000) 체계론에 의한 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에 관한 연구 :부산 및 경남지역 주부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53-65.
- 박미금 (1993) 부부의 경제생활 만족도 비교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배미경 (2001) 경기불황에 따른 자영업가구의 재정비율의 변화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 19(4), 211-223.
- 안수미 (1998) 자산관리과정과 부부의 역할구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승철 · 김년희 (1999) 도시가계의 재정만족도 관련요인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7(7), 111-125.
- 양정선 (1992) 체계론에 근거한 도시가계의 저축 및 투자행동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정선 (1997) 산술적 저량과 재무비율 측정을 중심으로 한 가계의 재정상태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상협 (1999) 도시가계의 재무관리와 재정만족도의 영향변수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4), 71-84.
- 이선형 (1995) 노인단독가구의 가계재정관리와 경제생활 만족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연숙, 양세정, 주인숙 (2000) 가계재무관리의 이해. 도서출판 신정.
- 임정빈, 조미환, 이영호 (1995) 농촌가정의 의사소통·재무관리행동·가정생활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156-169.
- 임정빈, 조미환, 이영호 (1998) 도시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141-153.
- 주인숙 (1995) 도시가계의 부채관리와 재정만족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주인숙, 이연숙 (1996) 도시가계의 부채관리와 재정만족도-체계론적 접근법의 적용-.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11-126.
- 최윤지, 최현자 (1998) 재무비율을 이용한 농촌 중노년기 가계의 재정상태 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83-96.
- 최현자, 이희숙, 양세정, 성영애 (2003) 재무비율을 이용한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4(1), 99-120.
- 홍향숙 (1997) 기혼여성의 재무관리교육에 대한 요구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1), 53-70.
- 홍향숙 (1997) 가계의 재무관리와 재무목표달성도. 대한가정학회지, 35(6), 157-171.
- 홍향숙, 이종혜 (1999) 개인·가계·환경변수가 가계의 재무영역별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학회지, 2(1), 12-24.
- Deacon, R, Firebaugh, F (1998) *Family resource management; principles and applications*. Boston, MA: Allyn and Bacon.
- DeVaney, S (1994) Usefulness of Financial Ratios as Predictions of Household Insolvency.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5, 5-23.
- Garman, ET, Forgue, RE (1991) *Personal Financed*, 3rd ed., Boston : Houghton Mifflin Company.
- Griffith, R (1985) *Personal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A modest beginning*. In Langreher(Ed), *The Proceedings of AFCPE*, 123-131.
- Hira, T (1987) Factors affecting satisfaction with various aspects of households' finances. Paper presented at the 1987 AHEA Family Economics-Home Management Preconference Workshop, *The Destiny of Families: How Their Futures Are Chosen*, Indianapolis, IN.
- Jean ML, Ju, IS (1992) A Model of Credit Use and Financial Satisfaction,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Volume 3*, 105-122.
- Magunda, OM, Hira, TK, Fanslow, AM (1990) Assessing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Communication, Money Management Practices, Satisfaction with Financial Status and Satisfaction with Quality of Life, *Life Styles: Family and Economic Issues*, 11(4), 343-360.
- Prather, CG (1990) The Ratio Analysis Technique Applied to Personal Finance Statements : Development of Household Norms, *FCP*, 1,53-70.
- Titus, PM, Fanslow, AM, Hira, TK (1989) Net Worth and Financial Satisfaction as a Function of Household Money Managers Competences, *HERJ*, 17(4), 309-318.

(2006. 08. 07 접수; 2007. 01. 15 채택)